

바지락

2023년 5월호

바쁜 출근, 지친 퇴근, 즐겁게 바꾸자

- 2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 4면 비엠아시아내하청지회의 기적
- 6면 노동자의 날, 우리도 쉬고 싶다
- 7면 QR코드 활용 꿀팁
- 8면 모든 노동자를 위한 금속노조의 요구

* 제호 글씨 디자인 : 최진숙 금속노조 조합원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주휴수당'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 준다는데, 이게 맞아요?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요일이지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① 시급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주 5일·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 시급 1만 원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1만 원)

예) 주 5일·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 시급 1만 원
주휴수당 = 4시간 × 시급(1만 원) *주 급여는 24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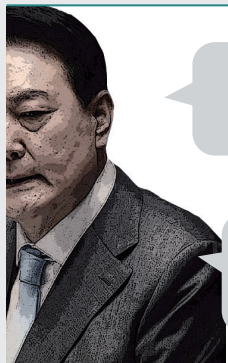
②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예)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월급 ÷ 209시간)

- Q 지각이나 조퇴했다고 주휴수당을 안 준답니다.
- A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지각 횟수에 따라 1일 결근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Q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공휴일이 끼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휴일이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을 빼고 일하기로 한 날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Q 연차휴가 쓰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A 연차휴가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권리)예요.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닙니다. 주중 공휴일에 쉬는 날 같은 경우입니다

주의 주 5일 근무제에서 5일 연차 쓰면 일한 날이 없어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전국 어디서나 무료 노동 법률상담 1811-9509



“사장이 임금 계산하기 복잡하니, 노동자 임금을 깎자.”

“사장이 쪼개기 계약을 못 하게 제도를 보완하는 대신, 노동자 임금을 깎자.”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주휴수당이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의 원인”이라며 사실상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정부 말대로 하면 올해 월 최저임금 약 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약 34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노동자는 일한 만큼, 일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파괴한다는 정부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목소리 냅니다. “소중한 나의 권리, 함께 지킵시다.” 전화 1811-9509

노동조합 왜 하나고요? **기적 같은 일들로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비엠아이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동차 범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공과 조립 공정에 각각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회사는 갖가지 방법으로 노동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니까, 그나마 조금 있던 상여금을 매달 쪼개서 기본급에 녹였습니다. 그리고 5년째 임금인상을 막았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서, 각자 연차 쓰라고 강요합니다. 연차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점심 후딱 먹고 좀 쉬려 하면 “자재 정리해라”,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청소해라”, 쉬는 시간에 못 쉬게 합니다. 정말 아주 많이 참았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더는 참을 수 없어 2021년에 “우리도 노조 해보자”라면서 금속노조를 찾았습니다. 이왕 할 일 제대로 하려고 동료들과 얘기 많이 하고, 준비해서 2022년 우리 현장에 금속노조를 세웠습니다. 어찌나 두근두근 짜릿짜릿 기쁘던지요.

만들기만 한다고 저절로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무슨 노조냐”라며 교섭하기 싫다고 피하고, 교섭에서 합의해놓고 뒤집고, 속이 무척 상했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옆 사업장 얘기 들어보면 처음엔 다 그런다고, 회사들 태도가 어찌나 똑같던지요. 그래서 그런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다.” 어차피 겪는 과정이라면, 금속노조를 믿고 곳곳하게 버텨보자고 동료들과 의지를 모았습니다.

함께하니 이게 되네

“회사 마음대로 연차를 쓰게 해서 입사 후 10여 년 동안 항상 마이너스 연차였는데, 노조가 생기고 처음으로 연차가 남아 수당까지 받는 기적을 보았다.”

“회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하면 노조를 믿고 반박할 수 있어 후련하고, 불합리한 지시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좋은 노동조합, 함께 나눕시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세다는 사실을 노조에 가입하고 알았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제도라서, 현장 노동자들을 보호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이 좋은 노동조합을 왜 이제야 했지? 다른 회사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호받고, 권리를 지키면 좋잖아요.

금속노조 충남지부 비엠아이새내하청지회

노동자의 힘이 세지고 권리를 보호받는 현장,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남들 다 쉬는 노동자의 날, 우리도 쉽시다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유급휴일인데, 다들 하루 잘 쉬었나요?

어쩔 수 없이 일하면 '휴일 연장근무 수당' 받아야 합니다

5월 1일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법정기념일'로 보장한 '유급휴일'입니다. 노동자라면 쉬는 날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법정기념일은 사장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도, 직장인의 40%가 5월 1일 출근합니다. (2019년 조사) 5월 1일 어쩔 수 없이 일하면 '휴일 연장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따로 정한 사실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쉴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법 제도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하는 무법지대 현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 날에 쉬기는커녕 선거 날 투표권·공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회사에 쉬어도 되는지 묻고 싶지만, 부담과 중압감에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는데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지키도록 바꾸면 됩니다. 혼자라면 어렵지만, 동료들과 함께라면,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노동조합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당연한 일'이 되는 일상, 좋은 건 함께 누립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출근하는 슬픈 일상은 과거로 보내자고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정부가 쉬고, 권리 행사를 보장한 날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봅시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칵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꿀팁. <바지락>을 모바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노동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 다양한 정보, 지난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2023년 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

일하면서, 일하기 위해, 퇴직 후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 정보와 상담 정보를 한눈에.



포켓 사이즈 수첩을
직접 받아보고 싶다면

문의 1811-9509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뭉친 힘'으로, 사업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노동자를 위해 만든 단체이자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죠.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자연스럽게 갖는 많은 권리와 똑같은 권리 중 하나입니다.

왠지 멀고 낯설고 망설여지나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모여서 자기 일상을 살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현장에서 노동자의 힘을 키우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불합리한 현장을 바꾸고,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노동자라면 주저 말고 노크하세요.

모든 노동자와 함께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실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적용할 법정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 멋대로 정하지 말고, 제도의 취지를 지키라고 합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은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권리를 파괴하는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임금체계 개악 법을 밀어붙이는
정부에게 안 된다고 목소리 내고, 노동자·시민에게 알려왔습니다.

5월 31일 전국에서 금속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금속노조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일만 하다 죽으라는 주 69시간 노동제 전면 철회하라."
"근로기준법 개정해 모든 노동자 차별 없이 제대로 적용하라."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일터에 좋은 변화를,
금쪽같은 나와 우리의 권리 보호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함께 합니다.



최저임금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노동상담·노동조합 가입 문의  1811-9509